

순천만 조류 분변서 AI 검출...방역 비상

고병원성 여부 오늘 중 결과...전남도, 반경 10km 내 가금류 21일간 이동 제한·농가 긴급 소독

철새도래지인 해남 고천암호와 순천만에 이어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전남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고천암호는 저병원성 AI로 판정돼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순천만은 이르면 20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해남 고천암호와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 전남 인근인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고천암호와 순천만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해 21일간 이동을 제한했다. 또 주변 10km 이내 가금류의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닭·오리 농가에는 긴급 문자를 발송해 축사 그물망 정비, 무단소 강화 등 야생조류 차단방역 요령을 안내했다.

또 고천암호와 순천만을 비롯해 주암댐, 영산강, 영암호, 함평 대동저수지, 고흥만, 해장만, 득량만, 강진만 등 주요 철새 도래지 10곳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 일제 점검도 실시했다.

다행히 고천암호의 경우 지난 18일 저병

원성 AI로 최종 판정돼 전남도는 이동제한 조치 등을 해제했다. 순천만은 이르면 20일 최종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남 경계지역인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도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전남도는 19일 인근 장성과 영광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을 긴급 설치했다. 전남도에 있는 고창 오리농장 계열 농가 2곳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한 결과, 이들 농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오는 23일 농업축산식품부장 주재로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시·군 및 계열농장의 AI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전남지역 대표 철새 도래지인 해남 고천암호를 방문해 방역 관리와 인근 농가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저병원성이지만 국내 야생조류에서도 AI 항원이 지속해서 검출됐다”며 “야생조류 유입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AI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평창올림픽 성화 남도 달린다

23일까지 전남 12개 시·군 순회...광주는 24~26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를 발원 성화가 지난 18일 전남 광양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여정에 올랐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올림픽 성화는 제주와 경남을 거쳐 이날 광양에 도착했다. 광양에 도착한 성화는 오는 23일까지 전남도 12개 시·군 310km를 달리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알린다. 특히 전남지역 성화봉송에서는 강강술래, 케이블가, 헬기봉송 등 이색 봉송도 계획돼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여수에서는 해상케이블가와 동백열차를 활용한 봉송이, 20일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를 지구촌에 소개한다.

21일에는 헬기를 이용해 전남 서남해안의 아름다운 섬을 알리는 봉송이 펼쳐진다.

전남지역 성화봉송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468명의 주자가 참여한다.

23일까지 전남을 돈 성화는 24일 광주로 넘어와 사흘간 광주 시내 곳곳을 누비게 된다. 광산구 송정갈라사진관에서 출발한 성화는 사흘동안 북구와 동구, 남구, 서구 등 총 거리 96.1km를 달린다.

광주지역 성화봉송은 주자 봉송구간(66.9km)과 자동차를 이용한 차량 봉송구간(29.2km)로 나뉘게 되며, 주자 340여명이 참여한다. 성화봉송 마지막날인 26일에는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출발해 화정중학교, 광주월드컵경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19일 전남 여수시 돌산공원에 도착해 특수 램프에 담겨 동백꽃으로 장식한 해상 케이블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등을 거쳐 광주시청에서 마무리된다. 특히 광주 성화봉송 구간 중 무등산 일석대와 5·18극복묘지, 양림동 문화의 거리는 이색 스카이다이퍼 봉송구간으로 지정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의 역사와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봉송기간 중 성화가 도착하는 마지막 장소인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청에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지역축하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포항에 온정의 손길

시, 생수 4천여병·위로금 1천만원...지원단 파견도, 성금 2천만원 전달...시설물 점검팀 등 90명

광주와 전남도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에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광주시는 19일 “포항시를 찾아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김중식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원단은 포항시 지진피해 시랑나눔 성금접수처에서 최종 포항시 부시장에게 빚어올수 4200병과 위로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 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센터, 공무원 등 100여 명은 집게, 장갑, 마대를 지원하고, 폐가물 처리 등 재해복구를 도왔다.

광주시는 포항시 재난대책상황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원 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을 적시에 지원하고, 응급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지난 1월 설 대목을 앞두고 덮친 여수 수산시장 화재 당시 전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서둘러 포항을 찾았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포항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찾아 김중주 경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지진 피해가 큰 포항시 흥해읍 현장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전남도는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설물 안전점검단 3팀(6명)과 자율방재단원 90명을 20일 포항에 파견하기로 했다. 인건비 등 소요 비용은 모두 전남도가 부담한다.

특히 주택 1200여 채가 피해를 봐 안전 점검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점검단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의 지원 손길은 두 지역간 교류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2015년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후 공무원 교류 등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때는 경북도에서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교회에 마련된 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대피소에는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개인용 텐트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한·중·일 지방외교 눈길

中 산시성과 자매결연...日 사가현과도 추진

전남도의 활발한 한·중·일 지방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도는 그동안 미뤄졌던 중국 산시성(山西省)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기존 우호 교류를 한 단계 격상하는 것으로, 한중관계 복원 움직임과 맞물려 실질적 교류 성과가 기대된다. 일본 사가현과도 자매

결연을 추진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등 방문단은 오는 24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자매결연 체결식을 연다.

두 지역은 경제 무역, 에너지, 농업, 환경 보호, 과학기술, 문화, 교육, 관광 등 분야에서 다각적 교류협력을 하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산시성장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전기차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농수산 홍보전시회 교환 개최, 청소년 문화 교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남과 산시성은 2007년 광양제철이 산시성의 마그네슘을 수입한 것을 인연으로 우호 교류 협약을 했다. 2015년 12월에는 두 지역 간 자매결연 체결에 합의했지만, 체결식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 권한대행은 방중 일정을 포함해 오는

20일부터 6일간 일본과 중국에서 투자 유치와 국제 교류 활동을 한다.

일본에서 3일간 머물며 사가현(佐賀縣) 지사와 회담해 자매결연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열리는 제26회 한일협력 연안 시도연 교류 지사회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제 발표를 하고 정밀화학기업인 스미토모세이카사와 투자협약도 체결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면에서 계속

개인 교통수단인 승용차의 주행·주차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어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매연, 미세먼지 등 인한 피해도 과거 수준을 크게 넘어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해 모두 8차례였으나,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8차례 발령됐다. 지난 4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나빠졌고, 5월 6일부터 8일 사이에는 ‘매우 나쁨’ 정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5월 6일 미세먼지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광주지역 미세먼지 1일 환경 기준 초과 사례가 지난 6월부터 33차례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선진국의 대도시가 모두 도시철도와 버스를 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승용차 중심으로 할 경우 도로 공급 비용 증가 및 정체, 환경 악화, 사회적 비용 상승 등이 발생해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진적인 광주 도시 교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비금도·팻섬

- 임야 1401평, 보전관리지역
- 매 14억(일시불 대폭조정), 무인도

010-3605-5000 교환가능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한마음 공인중개사

- ▶ 신가동 4층상가건물 대지 240㎡ 보5천만원 월420만원포함, 매매가 9억5천만원
- ▶ 송정동 3층상가건물 대지 280㎡ 최고요지 보1억4천만원, 월710만원 포함 매매가 20억원
- ▶ 나주혁신도시내 빛가람동 대지239㎡ 건물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포함 매매가 4억2천만원
- ▶ 금곡동 중상사근처 고급 전원주택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1층 126㎡(주택정원 잔디밭, 발, 주차장소재) 사정상급매, 매매가 7억원(조정가)
- ▶ 화순 도곡온천내 무인텔 대지3000㎡ 건물4층 3동, 객실 37개, 월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지28억원포함, 매매가 37억원
- ▶ 담양 월산면 모텔(무인텔, 요양병원 최적화) 대지4200㎡, 계획관리지역, 건물2동있음(현재 담양군 모텔허가 안나옴) 철거후 무인텔허가 가능 매매가 10억원(조건부 협상가)
- ▶ 광산구 송치동 180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억원
- ▶ 제주시 과수원 1840㎡(도로있음),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4억4천만원
- ▶ 신안군 비금도 염전 (태양광), 25,000㎡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600만원
- ▶ 장성군 남면 행정리 440㎡, 1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9300만원
- ▶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백양사와 월산면 사이) 생산관리, 2800㎡ 전망최고, 매매가 1억350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개림오거리

기독교대안학교 입학설명회

호남의 영재들 텍사스로 입성하다

기독교학생 3주 미주훈련
2018년 1월 21일~2월 10일
(비용 320만원)

일시 : 2017년 11월 25일(토) 11:30
문의 : (061) 381-0000

TALK **광주국제기독교스쿨**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